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강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순천시 '그린월드어워즈'

친환경 우수도시로 '금상'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세계적 인정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개최된 '그린월드어워즈(The Green World Awards)' 시상식에서 순천시는 세계적 친환경 우수 도시로 금상을 수상했다.

2014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그린월드어워즈는 영국 비영리 단체인 '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고 영국 환경청이 공인하는 상으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친환경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각국의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자는 "순천시는 별종위기종 후두루미의 자랑스러운 고향이다"고 생태대표도시 순천을 소개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보전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조성까지의 사례를 통해 생태계의 보전만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생태보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그린어플어워즈 금상'을 수상함에 따라 금년 '그린월드어워즈' 수상기관 후보에 올랐으며 금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임을 확인하게 됐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순천의 생태와 문화의 가치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의 행복지수와 자긍심을 끌어 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상기관의 우수 사례가 게재된 The Green Book은 아마존닷컴(Amazon.com)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으며, 여러 우수대학 및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순풍

2021년 1월까지 행복주택 등 총 830세대 공급 계획

광양시는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총 1,079억이 투자되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636,550㎡에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해 3,700세대,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인근 산단 개발에 따른 인구수용을 통해 시세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

다. 이번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17년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에서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요청한 공동주택 진입도로(L=144m, B=20.0m) 반영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을 요청한 사항들을 전남도에 변경 인가를 신청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지문 등을 거

쳐 수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오는 2021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와우지구 행복주택 430세대, 국민임대주택 200세대, 영구임대주택 200세대 등 총 830세대 공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신흥식 택지조성과장은 "와우지구 공공주택 건설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물입인구 수용과 시세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적이고 수준 높은 주거단지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경제청, '찾아가는 건강돌보미제' 만족도 높아

산업체 근로자들로 부터 커다란 호응 이끌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은 유일하게 광양경제청에서 서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방문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천 성가톨릭병원 순천청암대학, 순천시 보건소등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하여 이론 및 실습을 병행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건강돌보미제'는 지난해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개사, 4,100여명의 근로자에게 심폐소생술, 심뇌혈관질환, 금연, 고혈압, 당뇨병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4%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은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 계속해서 유익하게 광양경제청에서 서민 추진하고 있다.

서기원 청장 직무대리는 "찾아가는 건강 돌보미제를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제 사업을 확대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백향과' 성공모델 제시

외서면서 처음 재배 성공 본격 수확 및 도시민 대상 체험

순천시는 아열대과일 '백향과'를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외서면에서 처음 재배에 성공, 본격수확 및 도시민 대상 체험에 나섰다.

백향과는 시계꽃으로 유명한 패선프루트 나무의 열매를 말하며, 백가지 맛과 향이 난다는 열대과일이다. 비타민C가 석류보다 3배나 많고 다양한 기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작목으로 아열대작물 보급에 나서면서,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외서면 선경열 농가를 제1호 시범농가로 육성한 결과이다.

백향과 재배에 성공한 선경열 씨는 귀농가구로, 블루베리를 재배한 경험과 수확체험을 백향과에도 접목, 수확 및 가공체험을 통해 다양

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귀농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선 씨는 "재배 노하우를 인근농가에 전파해 외서면을 딸기모와 더불어 백향과 수확체험 단지로 만들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금년 백향과 성공을 시작으로 아열대작물에 관심 있는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아열대작물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과 아열대과수 수확체험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AI 총력 대응 해맞이 행사 취소

화순군은 무술년 새해 민연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암지역에서 추가발생하자, AI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무술년 민연산과 화학산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

소했다.

화순군은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지난해 20일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3교대로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AI 총력 방역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철저한 방역을 통해 백신특

구인 화순에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금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및 닭 사육농가 질병검사 등 AI 예방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구충곤 화순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도곡면 지식천 일원에서 농·축협과 합동으로 인접시군 경계지역 하천변 집중 차단방역에 나서기도 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야외스케이트장 22일 개장... '최상의 빙질 보완'

부대시설 확충·시설 보험 가입·안전요원 배치 등 대폭 개선

동절기 나주 시민들의 새로운 놀이 장소로 인기리에 운영됐던 나주시 야외스케이트장이 올해도 문을 연다.

나주시는 나주목사내 앞 광장(작년과 동일)에 면적 1,200㎡에 최대 90명까지 수용 가능 한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 이달 22일부터 약 60일 간(내년 2.19까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전남도 내 최초 개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나주 야외스케이트장은 관내 초·중학생 등 주말 평균 400여명을 동원하며, 동절기 야외 가족 나들이 장소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쇼트트랙 등 빙상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이용객이 스케이트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최상의 빙질 및 부대시설 등을 적극 보완하는 한편, 저렴한 대여료 책정, 시설 보험 가입, 안전요원 배치, 주차 공간 확보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별도 휴장 없이 기간 내 매일 운영된다.



장비 대여료는 시간 당 2천원이며, 관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은 해당 금액의 50%감면이 용할 수 있다.

특히 개장 첫날인 22일에는 시민 누구나 무료입장 할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펼쳐지는 개장식에는 시립 합창단과 난타 등 다채로운 부대공연을 비롯해, 농산물 경품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식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는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